



< 차별없는 꿈,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잉쿱 >

안녕하십니까? 잉쿱영어교육협동조합의 윤모린입니다. 저는 잉쿱의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새롭게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만들어진 서초강남의 신생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잉쿱은 ‘영어교육협동조합(English Cooperative)’이라는 뜻으로 2012년 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경력단절여성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잉쿱을 결성하기 두 해 전인 2010년에 소외계층 학생들 영어교육 자원활동을 진행하면서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BC를 모르는 중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엄마의 품이 그리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엄마의 품성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는 영어교육을 제공하면서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영어강사라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시스템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으로 내 자식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아이들까지 함께 나누고, 더불어 교육하는 영어교육협동조합, 잉쿱을 만들었습니다.

잉쿱은 ‘영어강사 육성사업’을 통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영어교육이 아니라 따듯한 ‘엄마표’ 영어강사를 배출하는 한편, 소외계층 학생들(초·중등)이 모여서 공부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비인가공부방에 잉쿱 강사들을 파견하여 영어교육 격차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잉쿱은 일반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조사,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경우, 현실적, 구조적으로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조직형태입니다. 지역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협동조합과 지역주민이 교육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상상을 영국의 사례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는 151개 학교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잉콧도 이를 조사 연구하면서 교육공동체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잉콧의 교육은 영어에서 시작해서 인성 및 품성 계발 교육, 리더쉽 함양,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교육으로 차츰 확장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한 강남구의 교육자원을 다른 구의 소외계층학생들에게 환원하는 협동조합 재능기부모델의 시초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은 물론 특히 협동조합들이 힘을 합쳐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이윤추구의 일반기업과 달리 사업체이자 결사체이므로, 사회적 요구와 조합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입니다. 협동조합 육성은 국가가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실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함께, 꿈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협동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운동을 우리 함께 펼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